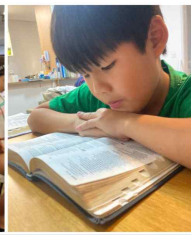
스물아홉번째 이야기

뚜두뱅 Tuduben! with GOD

[선교사 선교현장⑤ 브라질 김성주 선교사]

"BOM DIA(봉지아, 좋은 아침이에요)!" 삼바와 축구의 나라.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있는 한반도의 40배가 넘는 나라. 남미 대륙 14개국 중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 동네마다 잔디 구장이 있을 것만 같고 모든 국민이 축구만 할 것 같았던 나라. 너무나 멀어서인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정작 잘 모르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한 지 600여 일이 지났고, 여느 선교사와 같이 현지 적응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주지 집을 계약했고, 은찬이 학교를 등록했으며, 언어 훈련과 더불어 현지인 및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짜리 종교 비자를 한 번 갱신했고, 10년짜리 브라질 운전 면허증도 발급받았습니다. 브라질 사람을 만나더라도 동네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막막했던 브라질 정착은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부족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면허를 브라질 면허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 선교사와 함께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두 가지의 시험을 치르고 나니 집으로 면허증을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여 일 만에 도착한 진영 선교사의 면허증과 달리 제 면허증은 3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랍권에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가 있다면 브라질에는 '뚜두뱅: 모든 게 좋아' 이 있습니다. 워낙 낙천적인 문화의 영향인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한국인과는 다르게 이들은 '즐기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4개월쯤 지나 확인을 요청했더니 서류가 반쪽만 스캔되어서 서류 진행이 중단됐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별다른 안내도 없었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에 얼굴을 붉혔지만 결국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요? 2개월이 더 지나고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떻냐고요? 뚜두뱅~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한 해인 22년 말까지는 언어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시작한 언어 수업은 한 학기를 마치자 더 높은 벽이 되어 낮아진 자신감을 더욱 조롱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상태 그대로 너의 사역은 마무리될 거야…'

그때쯤 23년에 본부팀이 지부장 회의 및 브라질 전략회의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부담감은 가중되었습니다. '바다가 나를 가로막는다면 주님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지!' 정면 돌파를 선포하며 책상을 벗어나자는 결심을 하자 '꿈 선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의 자녀들을 보육하는 현지인 선교 단체인 '꿈 선교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단체가 운영하는 중고 물품매장에서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언어 진보를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은 이곳에서 언어의 훈련과 더불어 현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관계 확장의 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소뇨(꿈) 선교회 건물 소뇨(꿈) 선교회 바자회

브라질 전략회의 후 모두의 동일한 의견은 '어떻게 BEE 사역을 담당할 브라질 중심 교회를 찾는가'였습니다. 그중 82개의 지교회를 보유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노바이과수 교회'(담임: 조앙 누네스)가 연결되었고, 10월 13-15일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창연 선교사님의 인도로 목회자와 장로 및 다양한 교회 리더들 23명이 일대일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왕복 12시간의 거리이지만 교회 재방문 횟수를 늘려 말씀 사역에 대한 도전과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열매들이 맺혀질 경우 브라질 전역의 하나님의 성회 교단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 기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바이과수 교회 일대일 학장회의 및 전략회의

며칠 전 한 목사님께서 내년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BEE 과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곳의 교회에서 동일한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 놀랐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도 잠시, 나태해진 마음의 뿌리를 깊숙이 찌르는 성령의 음성에 회개하며 충성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현지어로 공부하는 신학교는 너무 어려울 테니 BEE 사역은 언어가 능숙한 뒤 시작하자. 현지인 대상 사역이라 언어가 자유로워야 뭘 해도 할 테니…'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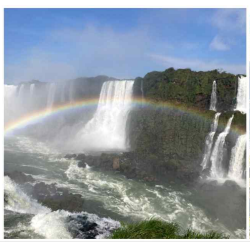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요2:9).' 이 고백 이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한 후, 약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소뇨 선교회 형제 연합교회 양다비 목사님

께서는 삶의 주인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복습을 통해 다시금 각인시키셨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있다는 안도감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BEE 사역을 통해 사랑하는 이 땅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가정에 주어진 대위임령의 과제를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브라질의 김성주, 정진영, 김은찬 선교사입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롬1:14)."